

사랑의 대상

마태복음 22:34-40

신앙생활에 있어서 겸손이나 화목, 순종, 믿음 등은 참으로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13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여 사랑이 가장 중요한 덕목임을 강조했습니다.

고전 12:31 에도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말한 후에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은사뿐만 아니라 모든 행위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최고봉은 믿음도 아니고 소망도 아니고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이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있습니다. 행복, 형통, 은사, 능력, 믿음, 축복, 기적, 신유... 사랑은 뒷전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뒷전으로 밀려 난 이유는 사랑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랑 안에는 믿음도 소망도 들어 있고, 그 외에 성경에 약속된 은혜와 축복, 신유, 은사, 능력, 기적 등이 들어 있는데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1.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37 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타락하자 그 인간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지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어느 계명이 큰지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주 안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3:23 을 보면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늘 기도하며, 성경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100 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살아 있는 아들을 죽여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듣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왜 즉시 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만 시험하시고 죽이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시간을 포기하고, 취미도 포기하고, 권리도 포기해야 합니다.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2. 사랑의 대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39 절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둘째가는 계명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면 자기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잘 것 없게 느낍니다. 남과 자신의 외모와 지식과 삶의 수준을 자꾸 비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릇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부족할수록 더 귀하게 쓰임 받는 존재임을 알 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보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도 하나님의 귀한 자식이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행복감이 옵니다.

3. 사랑의 대상은 이웃입니다.

39-40 절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둘째가는 계명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모든 다른 계명과 예언자들의 요구는 이 두 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기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이웃입니다. 형제, 자매, 친척,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자기 배우자까지도 이웃입니다. 그러한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처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최고의 사랑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것도 좋은 사랑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랑의 기초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이해해 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남의 입장에 서서 그것을 들어주고 느껴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다보니 갈등이 있게 됩니다. 그 때 사람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다양한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한 번의 충돌이 일어나면 그 사람과 완전히 답을 쌓아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옳지 않습니다. 한번 찍히면 영원히 찍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도 기독교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또 친한 사람들끼리만 친한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이 때 다른 사람들은 소외감으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늘 좋은 성격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4-7 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사랑에 관한 이론보다는 실천을 더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사랑의 메시지를 들었다 해도 아는데서만 그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실천하는 사랑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